耆老會 5월 10일 임시총회 열어
權寧吉씨 신임 회장으로 추대

▲ 기로회의 임시총회가 열리고 있다.

▲ 신임 권영길 기로회장. 자유수호국민운동의 행사에서 개회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 권영길 기로회장이 취임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 소재 안동권씨기로회耆老會가 5월 10일 11시 임시총회를 열었다. 전월 4월 10일 월례회에서 기로회의 기본재산인 회관 사무실 소유권 문제의 해결 방안을 놓고, 송사까지 가서 이를 해결하지는 못하겠다고 하며 권병홍權炳洪 회장이 사의를 표함에 따라 이를 맡아 해나갈 새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임원개선 총회가 5월의 월례회를 겸하여 소집된 것이었다. 권정택權貞澤 수석부회장의 사회로서 개회의례를 행하였다. 권병홍 회장이 인사말과 경위 설명을 통하여 현재 10여년 이래 기로회관 사무실의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안동권씨중앙종친회의 실무자와 협상한 내용을 상세히 밝히고 쌍방의 주장이 평행이어서 법적 소송에 가지 않고는 결말이 나기 어렵다는 사정을 들면서, 그래도 이목이 있고 하니 현 상태로 설득을 하며 기다리자는 쪽으로 유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앙종친회가 현재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주기 어려운 형편이라 기로회를 도와줄 여유가 없다, 법적 소송을 할 테면 얼마든지 하라, 그런 면에서 막강한 중앙종친회에 맞서서 무슨 승산이 있느냐고 한다는 등의 언사가 나와 듣고 있는 회원들이 곤혹스러워하는 한편, 좌중에서 거부감이 일기도 하였다. 요컨대 중앙종친회의 직원 급여와 기로회 사무실 소유권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기로회에서 누가 월급 타자고 소유권 주장하느냐, 막강한 상대한테 소송을 할 테면 해보라는 건 무슨 소리냐, 엄연히 법이 있는 세상에서 이게 무슨 논리냐는 것이었다. 권병홍 회장의 온건 타협안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다시 한번 회장을 그만두더라도 자기 이름으로 송사를 벌일 수는 없다는 뜻을 밝혀 사의는 수리되었다. 권영익權寧翼 명예회장이 임시의장이 되어 임원개선에 들어갔다. 기로회가 현재 처한 교착 상태에서 어려움을 타개할 새 회장으로는 예비역 원로 대령으로서 현재 사단법인 자유수호국민운동 상임의장과 사단법인 외교국방연구소 이사장 등 여러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추밀공파 문충공 양촌계 부여 출신의 권영길權寧吉 옹이 추대되었다. 기로회의 고문으로서 자주 월례회에 참석해오던 권영길옹은 이날 다른 관련 단체의 모임을 주재하는 일로 불참하고 있는 상태였다. 권영익 임시의장은 며칠 전에 권영길옹이 여러 비영리 사회단체의 명예직을 맡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수입은 없는 형편이어서 기로회의 회장직을 맡게 되어 응분의 협찬기여를 감당할 여력이 여의치 않은 형편이나 기로회가 이같은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고 거절을 못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권영길옹을 부재중인 상태에서 만장일치로 다음 회장으로 추대하고 이하 임원의 선임은 권영길옹으로부터 공식 취임승낙을 받은 다음, 현임원진이 함께 회동하여 선출하도록 위임하였다.

1주일 후인 5월 17일, 권영길옹 이하 임원진 15인이 다시 기로회 사무실에서 회합하여 권영길 신임회장의 공식 취임승낙을 받고 위임받은 새 임원진을 개선하였다. 그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

회장 : 권영길權寧吉

▲ 정간공 묘전에 권영길 기로회장이 작헌하고 있다.

명예회장 : 권영익權寧翼
상임고문 : 권병홍權炳洪
수석부회장 : 권정택權貞澤
상임부회장 : 권기봉權琪奉
부회장 : 권준식權俊植、권진택權晋澤、권태영權泰永、권순팔權純八、권오필權五泌、권오일權五逸、권혁채權赫彩、권도연權度延
감사 : 권우식權虞植 : 권오상權五相
운영위원장 : 권병순權炳淳

한편 기로회는 6월 10일의 월례회를 신임 회장의 취임을 겸한 단합 모임으로 하여 야외에서 회식연을 가졌다. 장소는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 있는 특수음식점 ‘ 방앗간가든 ’으로 하였고 당일 11시에 전철 3호선 삼송역 3번출구에서 11시 반에 집결하여 승합차로 이동하여 식당에 가 취임연을 마치고는 그곳에서 2킬로 쯤 떨어진 정간공靖簡公(시조후 15세 검교정승 휘 희僖、기로사 창시조) 묘소로 가 권영길 회장이 일헌을 올리고 성배를 하였다. 권영길 회장은 정간공의 직계 19대손이다.

<사진 · 글 權五焄>

경남 창녕종친회 정기총회
새 회장에 권화성씨 선출

▲ 창녕종친회의 권화성 신임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안동권씨 창녕군종친회가 4월 30일 오전 경남 창녕군 영산면 죽사리 소재 ‘ 도리원 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10시 30분에 개최된 회의에 60여명이 참석하였다. 권정홍 회장이 개회하여 시조 묘소를 향한 망배를 하고 권대곤、권봉안 전 총무에 대한 공로패를 증정하였다.

권정홍 회장이 인사말에서 ‘ 임기 4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의 정기총회에 많은 회원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그리고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한다 ’ 하고 앞으로도 종친회의 발전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그리고 최근 발간한 창녕종친회원의 명부 책자 일에 노고한 권화성 총무에 대한 감사의 박수를 유도했다. 다음 군의원인 권유관 회원이 축사를 하면서 이번 지방 선거에 도의원 후보로 출마하게 되는 배경과 취지를 설명했다.

권정홍 회장이 중앙종친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있었던 사안에 대한 보고를 하였고 권화성 총무가 회원 명부 발간에 대한 경과보고를 하였다. 이어 감사보고와 결산보고가 있고 결산안을 통과시킨 다음 임기가 만료된 회장 이하 임원진의 개선이 있었다. 차기 회장으로는 권화성 총무가 선출되었다.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권화성씨는 취임을 수락하고 ‘ 연장자가 되는 분이 회장을 맡아 종무를 잘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소망이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부족한 사람이 중책을 맡아 외람되고 책임감이 크다. 종친회 발전을 위해 회원들께서 함께 힘을 보태주시면 보다 힘찬 조직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는 요지의 인사를 하였다.

<창녕종친회 제공>

安東權氏耆老會

愛不可愛 :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恕不可恕 :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며
犯而不校 : 핍박받아도 변명하지 말라

회　　장 權寧吉
명 예 회 장 權寧翼
상 임 고 문 權炳洪
수석부회장 權貞澤
상임부회장 權琪奉
부 회 장 權俊植、權晋澤、權五泌、權泰永、權度延、權純八、權五逸、權赫彩
감　　사 權虞植、權五相
운영위원장 權炳淳